

# 상장사 실적 개선됐지만... 반도체주 빼면 '속 빈 성장'

## 상장사 2025 결산

코스피 상장사 매출액 6.08% 증가  
삼전·하이닉스 제외 매출 -0.46%  
코스닥 영업이익 17.18% 늘었지만  
기업 44%가 순손실 기록하며 적자

국내 상장사들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성장폭은 크게 둔화된다. 결국 이번 실적 개선은 반도체 업황 회복에 크게 기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주식시장 내 반도체 업종의 존도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수익성 개선에도 적자 기업 비중이 높은 구조적 한계가 이어지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12월 결산법인 2025사업연도 결산실적'에 따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면 코스피 상장사 626곳(금융업 등 제외)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3082조7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6.0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44조7882억원으로 25.39%, 순이익은 189조3910억원으로

33.57% 늘어나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각각 7.94%, 6.14%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매출 증가율은 4.45%에 그치

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증가율도 각각 10.76%, 15.64%로 낮아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결 기준 매출 비중은 약 14%에 달한다. 시장 전체 실적이 개선됐지만, 체감 경기와 의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다.

특히 개별 기준으로 보면 두 기업을 제외할 때, 매출(-0.46%)과 영업이익(-3.69%)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적 개선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업황 회복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수익 성장세에도 흑자 기업 비중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626개사 중 471곳(75.24%)이 흑자를 기록했으며, 전년(77.48%)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업종은 매출 13.80%, 순이익 89.50% 증가한 반면 건설·비금속 등 일부 업종은 부진을 이어갔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

다. 코스닥 상장사 1268곳(금융업 등 제외)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297조1658억원으로 전년 대비 8.0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1조7124억원으로 17.18%, 순이익은 5조2952억원으로 51.42% 늘어나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각각 3.94%, 1.78%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적자 기업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체 1268개사 중 558곳(44.01%)이 순손실을 기록하며, 상장사 10곳 중 4곳 이상이 적자를 이어갔다. 흑자 기업은 710곳(55.99%)으로 절반을 넘었지만, 지난해 741곳(58.44%) 대비 줄어들었다. 절대적인 비중에서도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부채비율도 지난해 말 기준 113.10%로 전년 104.40% 대비 8.70%포인트(p) 증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 F4 “중동 변수에도 흔들림 제한적”... 외인 4.4조 순매수

경제부총리·한은·금융위·금감원  
시장상황점검회의 열고 대응 점검  
WGBI 편입 맞물려 자금 유입 확대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을 점검한 결과, 국제시장 변동성은 완화 흐름을 보이고 외국인 자금 유입도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전개와 미국·이란 협상 상황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관련 발언이 국제유가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만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가 효과를 내며 채권시장 불안은 다소 진정되

는 모습이다. 5조원 규모 긴급 바이백 등 조치가 금리 변동폭 축소에 기여하며 국제시장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세계국제지수(WGBI) 편입이 지난 1일 공식 개시된 이후 외국인은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국고채를 4조400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일본계 자금을 중심으로 유입이 이어지며 채권 수급 여건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부는 WGBI 추종 자금 특성상 외국인 자금이 단계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향후 채권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을 통해 자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측면에서는 제도 개선 효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외환시장 안정 관련 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내시장복귀계획(RIA) 도입 이후 투자자 반응이 이어지며 해외



(왼쪽부터)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투자자금 환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구 부총리는 3일 금융기관을 방문해 RIA 가입 현황과 시장 반응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취약 부문 지원 중심으로 설계된 만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최근 제기된 '달러 강제 매각' 관련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NH투자증권 매주·매월 자동 투자 금 적립 서비스 선택

최소 1g 단위부터 투자 가능

NH투자증권은 토스뱅크와 제휴해 KRX 금현물 시장 연계 '금 모으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KRX 금현물 시장을 기반으로 한 증권사 최초의 적립식 금 모으기 서비스다.

토스뱅크 앱 내 '목돈굴리기' 서비스에서 금 현물 거래 전용 계좌를 개설한 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NH투자증권 금 모으기 서비스는 '정기 매수' 기능을 통해 매월 또는 매주 정해진 금액만큼 금을 자동으로 모을 수 있고, 최소 1g 단위부터 투자가 가능해 소액으로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 일반 금 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와 달리 매매 차익에 따른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장기 적립 투자에 유리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특히, 금리 변동과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인 자산을 선호하는 동시에 목돈 투자보다 소액으로 모아가는 적립식 투자 성향이 강한 고객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NH투자증권은 금융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를 중심으로 '금'이라는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에 주목하고, 해당 고객층이 두텁게 형성된 토스뱅크를 파트너사로 선정해 첫 서비스를 선보였다. 향후 고객 반응을 토대로 서비스 대상과 제공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토스뱅크도 KRX 금현물 시장에서 개인고객 기준 약 25%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NH투자증권을 파트너로 선택해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금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 /허정윤 기자

# 청년 회계사 사망 계기... 한공회, '장시간 노동' 손본다

3분기 내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 시즌 과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회계사 사망 사고를 계기로 업계 전반의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전날 서울 서대문구 회관에서 중·대형 회계법인 20곳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감사 시즌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형 회계법인 소

속 청년 회계사 사망 이후 장시간 노동과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회계법인의 노동법규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재량근로제와 포괄임금제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운열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감사 시즌 중 작고한 젊은 회계사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자본시장의 파수꾼인 회계사들이 건강한 근로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때 회계 투명성도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량근로제와 포괄임금제가 실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편법적 관행과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다음 감사 시즌 이전인 올해 3분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공회는 회칙에 따라 회원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단순한 법규 준수 독려를 넘어 현장에서 파악된 문제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감사 현장 실무자와 청년 회계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감사업무수임 경쟁심화에 따른 감사시간 보수적 산정과 이

에 따른 감사보수 하락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97.2%가 12월 결산법인으로,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한공회는 오는 4~5월 감사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3분기 내 회계법인 대상 준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결산월 분산 등 구조적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이번 논의가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지속 가능한 근로환경을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준법감시인들이 내부통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정윤 기자

/허정윤 기자

/허정윤 기자